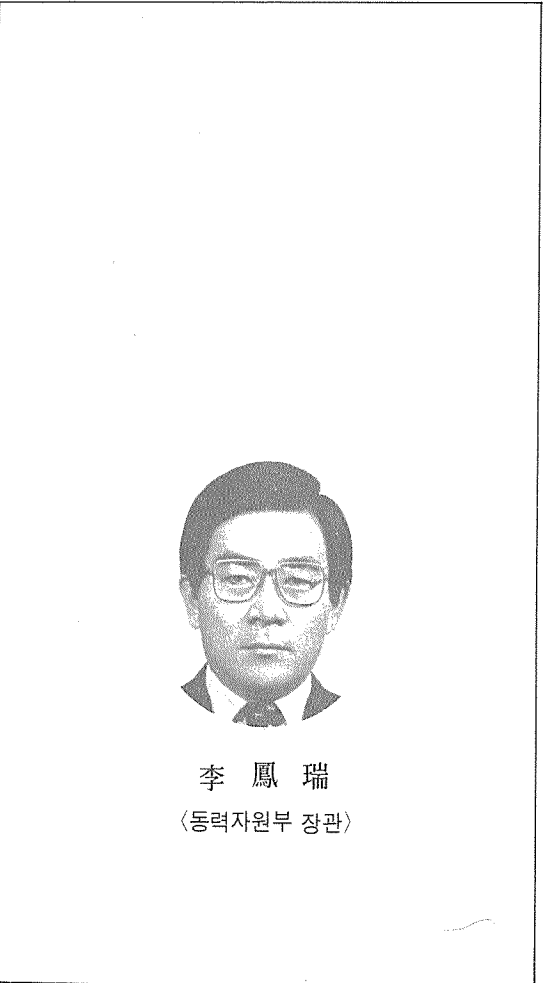


1. 불투명한 경제안정성장 전망

- '86년 이후 연 3년간 12%가 넘는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 돌파, 국제수지 흑자기조정착등 경제분야에서의 자랑할만한 성과는 우리국민이 정치, 사회적 급변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석유산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李 鳳 瑞
(동력자원부 장관)

수 있는 기반역할을 수행.

- 그러나, 금년들어 경제 각 분야에서 적신호적 현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이 심화.
 - 부동산등의 물가불안, 수출둔화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발생, 노사분규 격화에 따른 투자심리 저하등이 대표적인 적신호적 현상.
 - 이와같은 불안요인은 부동산 문제등 우리 경제에 고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인들과 해외로부터의 개방 및 원貨절상 압력등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한 것도 있으나, 노사분규의 장기화등 정치, 사회적 급변에 의해 발생된 파급효과를 경제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처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2. 전환기에 처한 에너지 자원산업

- 그동안의 경제안정 성장에 에너지 자원 분야가 큰 기여.
 - '86년 이후 국내油價를 45.9%, 가스가격을 45%, 전기요금을 17%씩 인하하여 물가안정의 견인차 역할.
 - 국제 原油價 인하에 따라 조성된 석유사업 기금을 통해 에너지 부문 투자 및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
- 그러나, 他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 분야도 전환기를 맞음.

-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양적·질적 변화가 초래.
 - 石油, 가스, 전기 등 고급에너지 수요 급증
 - 국민 난방연료의 대종을 차지하던 석탄의 수요감퇴 및 가격 경쟁력 약화로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가 불가피
- 환경 및 안전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제고되어 에너지 공급비용 증가현상 심화.
 - 환경오염 기준의 강화로 脫黃시설등 환경오염방지 투자 확대가 불가피
 - 반핵 분위기 확산등에 따른 에너지 생산시설 입지확보의 어려움 가중
- 경제 자율화의 일환으로 에너지 자원 분야의 규제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 요구중대

3. 石油분야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 石油수요 급증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제 마련
 - 지난 월동기에 경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난방연료의 공급불안 현상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해결책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91년까지 우선적으로 京仁間 송유관(약 40km)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수송문제로 인한 공급 지연 우려를 해소할 방침.
 - 서울 인근 지역에 대규모 제품 비축기지 건설을 검토중
 - 금년중 수도권 비축 석유제품을 전시 비상용만이 아닌 '수급 조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유 사용 체제를 재정비
- 石油수요의 질적 변화에 대한 수용 태세 정비
 - 質적인 측면에서의 급속한 石油수요 구조변화로 輕質油 및 저유황유 공급능력 확충필요
 - 이는 수요의 量的 증대에 대응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엄청난 부담을 초래

脫黃시설 重質油분해 일반정제

1B/D 생산시설 투자비 7천\$ 10천\$ 3천\$

-그러나, 과거 2~3년 동안 국제石油시장의 약세에

- 의한 輕質원유와 重質원유간의 가격차 감소로 기업의 수요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투자가 많이 지연.
- 앞으로 脫黃 및 重質油 분해시설 투자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
 - 유종별 차등기금제도 도입등 重質油 분해시설 투자의 경제성 제고 방안 수립 추진.
 -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의 가격 격차를 점차 확대하여 脫黃등 환경오염방지 투자를 촉진.
- 石油政策의 최우선 순위를 소비자 보호에 두어 모든 정책을 수립 추진.
 - '60년대 이후 우리의 석유정책은 소비자 이익극대화라는 최종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내석유산업 보호육성이라는 중간목표 달성에 주력.
 - 산업보호나 중소기업 보호는 그 자체가 최종정책목표는 아니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소비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며 중간 목표에 불과.
 - 그동안 보호육성을 통해 우리 石油産業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되는 만큼 이제부터는 산업보호라는 중간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자 이익 극대화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주력할 방침.
 - 3.14조정명령등 石油유통 분야의 신규참입 제한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방침.
 - 주유소의 상표표시 제도는 석유사업법 개정등 법제화에 앞서 현행법규로 가능한 유인책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도록 할 방침.
 - 금년 하반기부터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수요처에 석유제품 수입을 허용하여 정유업의 신규참입 규제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을 방지.

4. 무분별한 自律化의 문제점 인식 필요

- 최근의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石油産業에 대한 자율화도 논의되고 있음.
- 특히, 石油분야의 경우
 - '80년대 중반이후 국제原油價 안정 및 원화가치 상승으로 국내油價 불안요인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 그동안의 石油의존도 감축 및 原油비축능력 향상으

로 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만큼 原油를 비롯한 석유산업관련 정부규제위주 정책의 재평가 요구는 일응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안정공급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어온 石油政策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자원빈국이란 우리의 내재된 약점과 국제原油시장의 가변성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자율화를 선호함은 곤란함.

-石油를 포함하여 에너지 산업에는 본질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임.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한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볼 때 自律化라는 용어보다는 규제합리화라는 용어가 적합한 표현.

-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본원칙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국제석유파동등 비상시 대비를 위한 정부 통제 기능은 유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임.

-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세미나등 공개토론을 거쳐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석유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석유산업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5. 맺는말

- 오늘의 심도있는 토론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정부와 기업 양측에 모두 유익했다고 생각됨.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삶의 지혜 □

실패와 좌절에 떠는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은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

한알의 조그만 씨앗이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라.

행복도 불행도 성공도 실패도 다 그 시초는 조그만 일에서 배태되고 있다.

살아나가는 것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 짐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살아 있는 한 내가 완수해야 할 의무의 짐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짐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명인 것이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자

기에게 부과된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사람은 1년 먹을 양식을 광 속에 저장하듯이 행복도 모아두었다가 하나 하나 소비할 수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진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한군데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따르고 멈추는 사람에게는 행복도 멈춘다.

〈R. 에머슨〉